

임플란트, 수술후 관리가 중요한 이유?

기사입력 2012-08-10 09:30



[김민선 기자] 임플란트 치료의 목적은 손실되거나 상실 된 치아를 복원해 주는 데에 있다. 즉 형태적인 심미성, 저작의 간편함, 정확한 발음, 전체적인 구강의 건강을 회복해 주는 것이다. 임플란트는 시술 후에도 사용하는 동안은 계속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임플란트는 안전한 수술 후에 주의할 사항들을 잘 지키면 수명이 반영구적이면서도 편안한 치과시술 중 하나이다. 임플란트는 시술후 2주가 지나게 되면 자연치아와 똑같이 위생관리를 할 수 있다.

임플란트 치아는 규칙적인 칫솔질로 플라그의 형성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생관리를 게을리 하면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치석이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수술 후 첫 1년 동안에는 3개월에 한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 및 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현상인 '부종'이 생기거나 출혈, 통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합병증을 줄이고 임플란트가 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약 2주 동안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플란트 수술 후 어느 정도의 출혈은 정상적인 것이다. 수술후 2시간 30분 정도 침과 피는 뺀지 말고 삼켜야 한다. 그래야 시술부위가 빨리 나을 수 있다. 출혈이 지속된다면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를 등글게 말아 한 시간 정도 물고 있다. 식후에 약을 꼭 복용하고 양치는 시술부위 이외의 부분만 하고 시술 부위는 소독약(가그린)으로 살짝 헹궈준다.

수술 부위로는 음식을 씹지 않아야 한다. 식사는 연한 유동식으로 하되 찬 음식을 먹고 따뜻한 음식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수술후 처음 5일 동안은 절개부위에 음식물 잔사가 남아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3일 동안 코를 강하게 풀어서는 안된다. 사우나나 급격한 운동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수술부위를 혀로 밀거나 두드려서는 안되며 수술후 하루가 지난 다음에 뜨거운 찜질을 한다.

임플란트 시술후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금주와 금연이다. 금연을 하면 임플란트의 수명도 길어지며 상처 또한 쉽게 아물 수 있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는 “임플란트는 수술 받은 환자의 적절한 위생관리나 정기적인 치과검진이 중요합니다. 시술후 치과의사의 정기적인 검사와 지시에 잘 따른다면 오랜 기간 동안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말복, 보양식도 변한다 "삼계탕 말고 이거?"**

▶ **미혼男女 36% “바닷가 헌팅 해봤다” 남 > 여**

▶ **LG전자 ‘옵티머스 LTE 2’ 밸류팩 업그레이드 실시**

▶ **[날씨] 폭염과 열대야 기승 “올 여름 유독 더운 이유”**

▶ **'갤럭시S3 LTE' 세계 최초 VoLTE 서비스 지원, 기술개발 완료**

